

서울숲 지킴이들의 훈훈한 이야기

이 달의 이슈

서울숲 14th 생일파티

이 달의 인터뷰

서울숲이 좋아요!_이원빈 학생
달려라 피아노_아티스트 상아하

서울숲 다시보기

제비논_벼를 키우자

꿀잠 경연대회

식물 관람 에티켓

한국씨티은행 기업자원봉사_물길청소

서울숲 14th 생일파티



2005년 6월 18일 개장을 시작으로 올해 14번째 생일을 맞은 서울숲공원에서는 6월 13일부터 18일까지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서울숲이 시민들에게 주는 선물(줍줍, 팡팡, 쓱쓱), 시민들이 서울숲에게 주는 선물(줍줍), 서울숲과 시민이 함께하는 합동 생일파티 등 생일 주간에는 어떤 흥미로운 일들이 펼쳐졌을까요?

서울숲 플라스틱 ‘줍줍’

지난 16일, 서울숲컨서번시와 여성환경연대가 함께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줍줍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플라스틱 줍줍’은 서울숲을 걷고 달리며 쓰레기도 줍는 플로깅 프로그램입니다. 오전 9시부터 서울숲 내의 쓰레기를 줍기 위해 약 200명의 시민들이 모여 행사 시작 3시간만에 비닐, 배달업체 전단지, 일회용 빨대, 음료수 병뚜껑, 음료수 페트병 등이 각각 100여 개씩 수거하였습니다. 이번 플로깅 행사는 쓰레기를 주워 공원을 깨끗하게 하는 목적도 있지만, 우리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고 쓰레기를 최대한 만들지 않도록, 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다짐을 위한 행사이기도 했습니다.

※ 플로깅이란?

‘이삭을 줍는다’는 뜻인 스웨덴어 plocka upp과 영어단어 jogging (조깅)의 합성어로 조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행동을 말합니다.

초록선물 ‘줍줍’

6월 18일 서울숲 생일을 기념으로, 화분을 가져온 선착순 618명에게 초록식물 나눔행사가 서울숲공원 군마상 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서울숲이 시민들에게 선물한 초록은 5종류의 다육이로 (황마, 염좌, 특엽옥점, 금사황, 피핀바위술), 다육이는 다른 식물에 비해 비교적 관리가 쉽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키울 수 있는 식물입니다. 공원을 방문한 시민들은 집에서 놓고 있는 화분뿐만 아니라 커피를 마시고 남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화분으로 재사용하여 다육이를 심어갔습니다. 덕분에 행사 당일 공원 내 쓰레기통에 일회용 플라스틱컵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생태숲 투어 ‘쑥쑥’

지난 6월 13일부터 18일, 서울숲 생일 주간에는 총 4회에 걸쳐 공원내 생태 보호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생태숲’을 투어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투어는 동국대학교 바이오시스템대 바이오환경과학과 오충현 교수, 서울숲 자원봉사자 정인숙 해설가, 서울어린이대공원 이강오 전 원장, 서울숲공원 설계자 안계동 소장이 진행하였습니다. 투어 마지막 날 진행을 맡은 안계동 소장은 “서울숲을 설계한 나조차도 한 번도 와보지 못한 공간이다. 이번 기회에 투어 진행과 함께 생태숲을 관람하게 되어 영광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투어는 생태보호구역을 관람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서울숲컨서번시를 소개하고, 서울숲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숲속 합동 생일파티 ‘쑥쑥’

서울숲공원 어린이정원에서 서울숲과 서울 경수초등학교 부속 유치원 어린이들의 합동 생일파티가 열렸습니다. 주인공은 6월 생일을 맞은 2명의 어린이와 서울숲. 이들을 축하해 주기 위해 반 친구들은 두 조로 나누어 한 조는 토끼풀 팔찌를 만들고, 다른 한 쪽에서는 생일 축하 휴 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생일 축하 노래를 함께 부른 뒤, 마녀의 집을 같이 구경하며 파티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경수초등학교 부속 어린이집 친구들은 자연물을 활용한 숲속 생일파티라는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설렘정원 사진 촬영 이벤트 ‘팡팡’

설렘정원은 2019년 5월 서울숲공원의 원형마당에 새롭게 조성된 공간입니다. 지난 6월 16일, ‘행복이 담긴 열매의 숲’이라는 설렘정원의 컨셉에 맞게 서울숲에서의 행복한 순간을 남겨주는 사진촬영 이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선착순 200명을 위한 폴라로이드 즉석사진 뿐만 아니라, 서울숲과 관련된 특별한 사연을 가진 3팀을 위한 전문사진작가의 스냅 사진 촬영이 있었습니다. 선정된 시민은 “기대했던 것 보다 사진이 너무 잘 나온 것 같아 뿌듯하다.”, “초록의 숲에서 멋진 사진을 남겨준 서울숲, 항상 응원합니다.” 등의 말을 전했습니다.

서울숲이 좋은 이유요?

그냥 숲이라서요. - 이원빈 학생 (18)

방과 후, 자전거를 타고 하루도 빠짐없이 서울숲공원을 찾아오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번 서울숲 생일 기념 '생태숲 투어' 에도 4회 모두 참여하였는데요, 서울숲을 사랑하는 이원빈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Q. 서울숲이 왜 좋아요?

저는 서울숲 근처에 살고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서울숲으로 자주 놀러왔고, 이 때문에 동물과 식물을 좋아하게 됐어요. 매일 학교가 끝나면 집에 가서 책가방을 던져놓고 서울숲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이 저의 일상이랍니다.

Q. 서울숲에서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 있다면?

자전거를 타고 공원 전체를 둘러보는 것을 좋아하지만, 특별히 가장 좋아하는 공간은 커뮤니티센터 앞 호수에요. 호수에서 왜가리를 보게되는 날은 운이 좋은 날이에요.

Q. 이번 생태숲 투어에 4회 모두 참여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서울숲 홈페이지를 들어갔다가 우연히 서울숲 생일기념 행사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 중 생태숲을 투어하는 프로그램을 발견하고 망설임 없이 신청하게 되었죠. 생태숲이라는 한 공간을 4명의 선생님이 각기 다른 관점에서 설명해주시니 매일 들어도 새로운 느낌이었답니다.

Q. 참여했던 서울숲 프로그램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나요?

서울숲을 매일 오긴 해도, 주로 산책을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참여해 본 적은 많이 없어요. 어릴 적에 참여했던 '사육사가 들려주는 꽃사슴 이야기' 프로그램에서 먹이를 줄 때 사슴이 제 손을 핥았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어요. 그 이후로는 최근에 참여한 '생태숲 투어'가 두 번째 기억으로 남을 것 같네요.

Q. 식물을 사랑하는 원빈 학생의 꿈이 궁금해요!

내년이면 고등학교 3학년이 되기 때문에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대학교 전공 등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지만, 식물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은 확실해요. 언젠가는 영국의 큐 왕립 식물원에서 식물을 관리하는 것이 저의 최종 꿈입니다.





달려라 피아노

_아티스트 상아하

‘달려라 피아노’는 시민이 기증한 피아노를 재활용하여 공원과 거리에 비치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공익 음악 프로젝트입니다. 서울숲에는 총 2개의 피아노가 있습니다. 가족마당 무대 위에 위치한 1호 피아노와, 관리사무소 앞에 새롭게 추가된 2호를 예쁘게 새단장 시켜준 아티스트를 만나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티스트 상아하 (활동명) 입니다.
2012년도부터 신촌에서 라이브페인팅을 진행하면서,
좋은 기회로 달려라 피아노 프로젝트에 매년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리에 비치되어 있는 모든
달려라피아노를 작가님이 페인팅 하신건가요?

아니요,
전부는 아니고 대표적으로 서울숲공원, 신촌 흥익문고 앞,
몽촌토성 한성 백제 박물관 등에 저의 작품이 놓여져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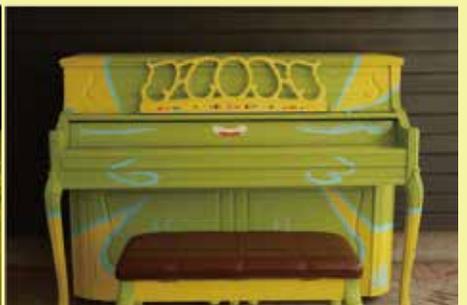
그렇다면 이번에 진행하게 된 서울숲 2호
피아노의 디자인 컨셉은 무엇인가요?

‘왕관을 쓴 네잎클로버’ 입니다. 네잎클로버가 행운을
의미하듯, 숲이라는 공간에서 산책 중 우연히 발견한
피아노에서 모든 분들이 행운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피아노를 이용하는 시민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피아노를 연주 목적만이 아닌, 하나의 미술 작품으로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피아노와 함께 인생샷을 남기기 위한 한 가지 팁은 ‘빨간색 의상’
입니다. 아! 흰 리에 청바지도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작업한 신촌
달려라 피아노에 많은 아티스트 분들이 연주를 하러 오시는데, 그 분들
이 신촌 뿐 아니라 서울숲에서도 멋진 연주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ㅎ

서울시 도봉구 창포원에서 온 ‘달려라피아노 2호’





제비를 위한 모내기 서울숲에서 제비를 본 적 있나요?



줄을 맞춰 벼를 심는 모습



제비논을 찾아온 제비

“이제 밥 남기면 안되겠다.” 지난 6월 1일, 제비먹이서식지 조성
을 위한 모내기 체험에 참여한 어린이의 말입니다. 따뜻한 여름이
오면 우리나라로 날아오는 제비는 과거에는 흔히 볼 수 있는 철새
였지만 도시의 발달로 제비가 안전하게 집을 짓거나 먹이를 구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숲에서는 ‘제비만을 위
한’ 벼를 키우고 있습니다. 제비가 집을 지을 때 필요한 진흙, 지푸
라기 등을 제공하고 그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
는 것이죠. 이것이 제비들이 서울숲을 꾸준히 찾는 이유이며, 서울
에서 제비를 볼 수 있는 몇 곳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매년 여름이
오기 전 진행되는 서울숲 ‘벼를 심자’는 도심에서만 생활하는 아
이들에게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색다른 추억을 만들어주고, 부모
님들은 옛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가족 체험형 프로그램입니다. 프
로그램에 참여한 가족들에게도 제비들에게도 좋은 선물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켜주세요, 식물 관람 에티켓



1. 식물 관람은 화단 밖에서

서울숲공원에는 계절마다 예쁜 꽃들이 피고 집니다. 식물
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찍기 위해 화단으로 들어가 꽃이
짓밟히는 경우가 생긴답니다. 나를 위한 사진이 아닌, 꽃을
위한 사진을 남겨주세요!



발에 밟혀 쓰러진 양귀비

2. 예쁜 꽃은 서울숲에서만 봐주세요 !

공원 내에 있는 모든 식물은 서울숲의 자산입니다.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이지만, 모두의 것은 아
니예요 ! 잎, 열매, 꽃 (심지어는 식물을 통째로.!) 등은 집으
로 가져가지 말고 서울숲에서만 충분히 눈으로 즐겨주세요.



서울숲컨서번시 직원들이 식물을 식재하는 모습

우푸푸 꿀잠대회

잠자는 숲속의 시민들



지난 23일, 유한김벌리에서 주최하는 '제4회 숲속 꿀잠대회'가 서울숲공원 도시락정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취업 준비와 학업, 아르바이트 등으로 항상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꿀잠을 선사하고, 숲속에서의 편안한 잠을 통해 숲이 인간에게 주는 소중함을 알리자는 취지로 마련된 행사입니다. 올해는 참가자 70명 모집에 1만 3천여 명이 지원하며 약 1:200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말 그대로 안정적인 심박수로 가장 오래 잠을 잔 1등에게 휴가 지원비 50만원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요즘, 가까운 숲을 찾아 맑은 공기도 마시면서 피로를 날려 보내며 잠시나마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진제공 The SMC

참가자들이 서울숲 도시락정원에서 꿀잠을 자는 모습



6월 8일 한국씨티은행 임직원 물길청소 자원봉사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숲 물길 청소

서울숲에서는 공원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주 3회 (매주 월, 수, 금) 물길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원 내에 흐르고 있는 물은 분당선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지하수를 끌어온 것으로, 서울숲의 실개천, 거울연못, 소원의 폭포 등을 지나 최종적으로 생태수에 모이게 됩니다. 지난 8일, 한국씨티은행 임직원과 그 가족들의 자원봉사 활동이 있었습니다. 직원의 인솔에 따라 물길에 떠 다니는 쓰레기와 불순물을 채로 건지고, 돌에 낀 이끼를 솔로 닦는 등의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봉사활동 참여자는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어서 좋았다.”, “자연환경을 내 손으로 직접 정화한다는 것이 뿌듯했다.” “자연에서 봉사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행복했다.”라며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온 가족이 힘을 합쳐 깨끗한 서울숲 만들기에 동참하였습니다.



[여름방학 캠프]
방학엔 숲으로

일시

8월 7일 (수) ~ 8월 8일 (목)

대상 초등학교 3~5학년

인원 회당 15명 (총 2회 30명)

내용 여름방학을 맞은 초등학생들이 서울숲의 생태를 체험해보고 자연에서 쉬는 느끼는 당일 캠프
문의 02-460-2919



[전시&프로그램]
식충식물전

일시

7월 23일 (화) ~ 8월 18일 (일)

10:00 ~ 17:00 (월요일 휴관)

대상 누구나 (무료관람)

장소 곤충식물원

내용 전시기간 내 토요일 오후 4시에는 파리지옥 먹방을 볼 수 있어요!
문의 02-460-2962



[프로그램]
꿀벌 대소동

일시

7월 20일 (토)

14:00 ~ 16:00

대상 초등학생 20명

장소 세미나실, 꿀벌정원

내용 꿀벌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양봉체험을 해보는 시간
참가비 1만원
신청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

7/6 (토) 서울숲 플라스틱 제로 피크닉

플라스틱 제로 놀이터

- 지구야 00해서 미안해 다짐 대회
- 현장참여 포토존, OX 퀴즈존
- 서명 이벤트 참여
- 플라스틱 제로 영상 상영

플라스틱 제로 피크닉

- 도시락 자랑 콘테스트

플라스틱제로 인플루언서 초청 토크콘서트

- 제로웨이스트 잡지(매거진 숲), 제로웨이스트샵 (더 피커), 망원시장 활동가 등

바다분수 가동시간 안내

운영기간 : 5~9월

미가동 요일 : 매주 월요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분수 가동)

운영시간 :

- 5, 6, 9월 : 13시 / 14시 / 15시 / 16시 (총 4회)
- 7, 8월 : 12시 / 13시 / 14시 / 15시 / 16시 (총 5회)

※ 우천시, 공원 관리상 시스템 오류 등에 의해 작동이 안될 수 있습니다.

